

Parenting Attitude Test-2nd Edition

PAT-2

부모용 연구개발 | 임호찬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

검사자명	SAMPLE	검사기관	인사이트	검사일	2025/03/18
------	--------	------	------	-----	------------

자녀 이름	SAMPLE	생년월일	2021/03/09
자녀 성별	여자	소속/학년	유아 / 유아

부모 이름	SAMPLE	양육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 양육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양육자
관계	아버지		

insyut 인사이트
Insight of psychology
심리검사연구소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PAT-2) 소개

본 검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검사의 요인별 수준 및 특징과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지침을 결과보고서에 제시하여, 보다 바람직한 양육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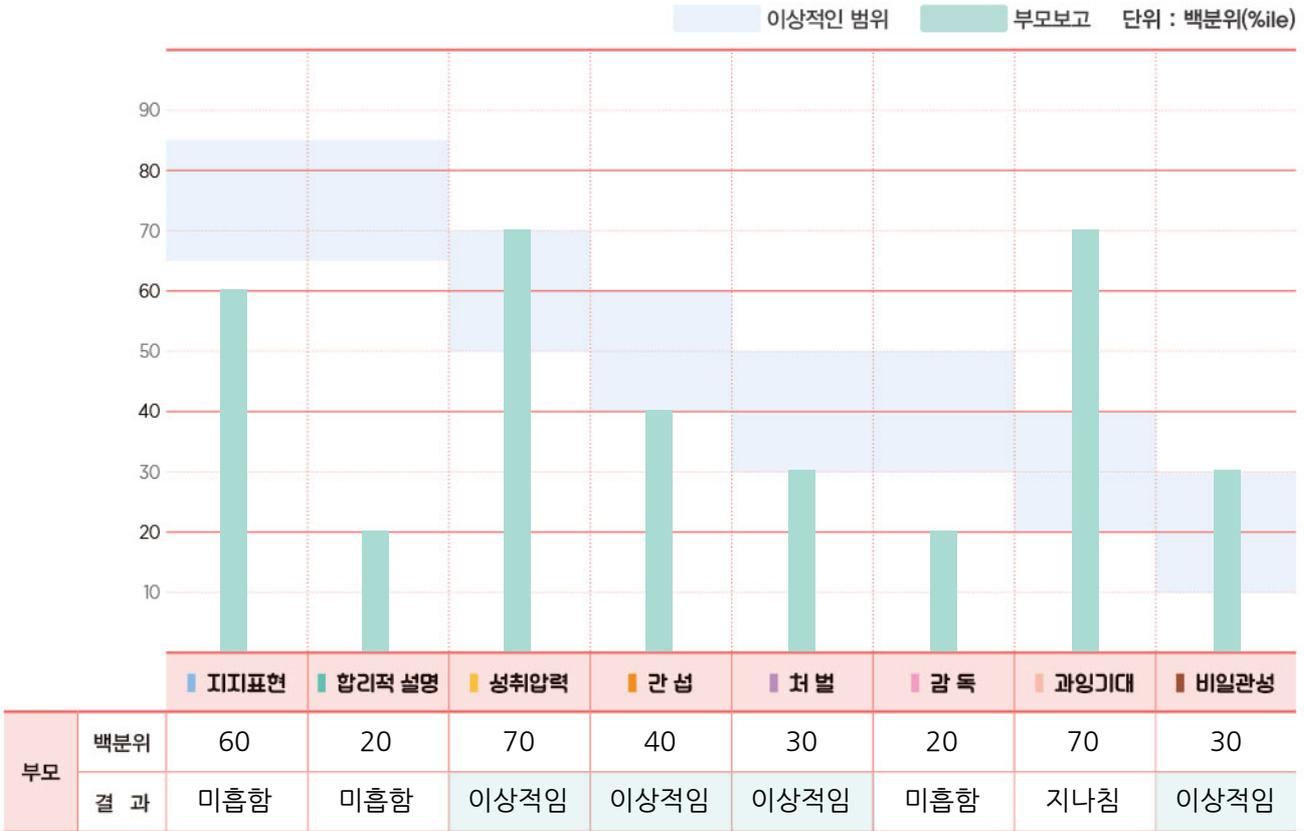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PAT-2)은 자녀용과 부모용으로 구성되어 부모님과 자녀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부모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부모로서의 자아상(self-image)과 자녀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서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백분위(%ile)를 기준으로 결과를 제시합니다. 백분위는 일종의 순위점수로서, 표준집단의 크기를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 해당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 중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냅니다. 양육태도의 수준은 요인별로 제시된 이상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10% 이상 높을 경우 '지나침'에 해당되며, 이상적인 범위보다 10% 이상 낮으면 '미흡함'에 해당됩니다. 양육태도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요인별 프로파일에서 양육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양육태도검사 2판(PAT-2) 요인 설명

요인	요인 설명
 이치표현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보이는 정도
 합리적 설명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꾸중할 때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의 정도
 성취압력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성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도
 간섭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도
 처벌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도
 감독	부모가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
 과잉기대	부모가 자녀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암묵적인 기대 정도
 비일관성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정도

종합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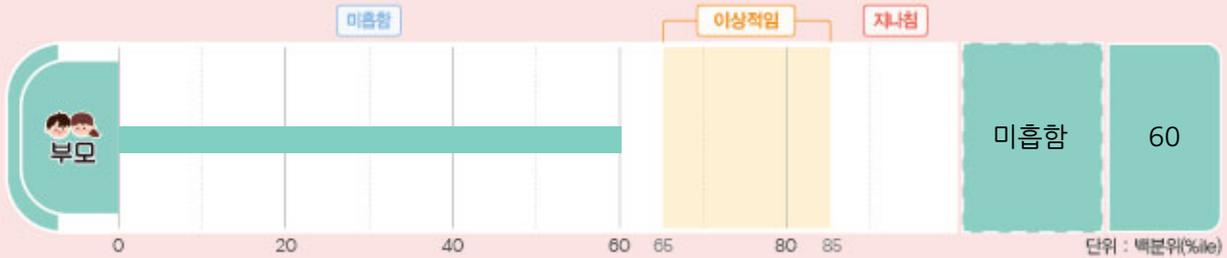


요인	이상적인 범위	이상적인 자녀행동	이상적인 자녀행동 설명
이미표현	65~85%	자기 신뢰적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합리적 설명	65~85%	자기 통제적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적게 느끼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성취압력	50~70%	스트레스에 잘 대처함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대처함
관섭	40~60%	적당한 활동수준	깊이 있는 사고습관을 가지며, 난이도 높은 문제도 쉽게 포기하지 않음
처벌	30~50%	새로운 상황에 호기심을 보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규범을 내면화 시켜 바람직한 행동 습관을 보임
감독	30~50%	목적적인 행동	행동 규범을 잘 습득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져 자율성이 발달된 모습을 보임
과잉기대	20~40%	성취지향적	자존감이 높으며, 지적능력이나 행동규범이 우수하게 발달됨
비일관성	10~30%	또래와 잘 어울림	부정적인 경험에도 잘 대응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요인별 프로파일

이치표현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애정 표현을 자제하거나 적게 하는 편입니다. 본 요인의 점수가 높으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상위 5% 이내)**에는 오히려 자녀의 지나친 울음이나 고집에도 자주 굴복하여 자녀가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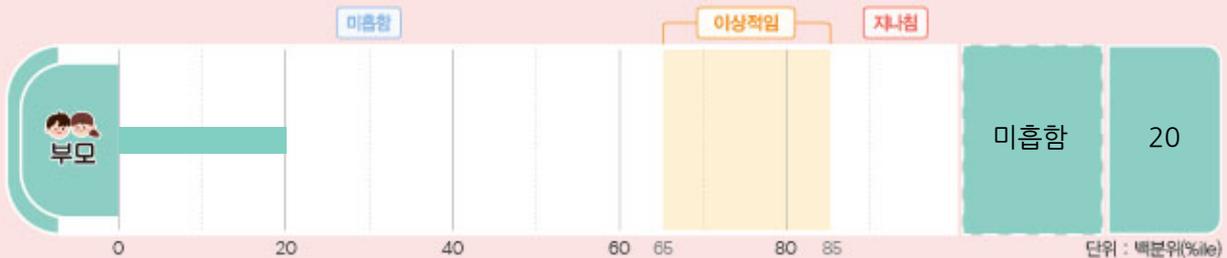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 어린 감정 전달을 조금 적게 하시는 편입니다. 40% 이하인 경우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원래 양육자의 성향이 사려 깊고 과묵한 마음 가진 경우에도 이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 수준에 따라서 애정 표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주 애정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칠 때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칭찬 또는 격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실망을 많이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조금 줄이시고 자녀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리적 설명

이 영역이 높을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으면(하위 10% 이하)** 부모가 적절한 규율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는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힘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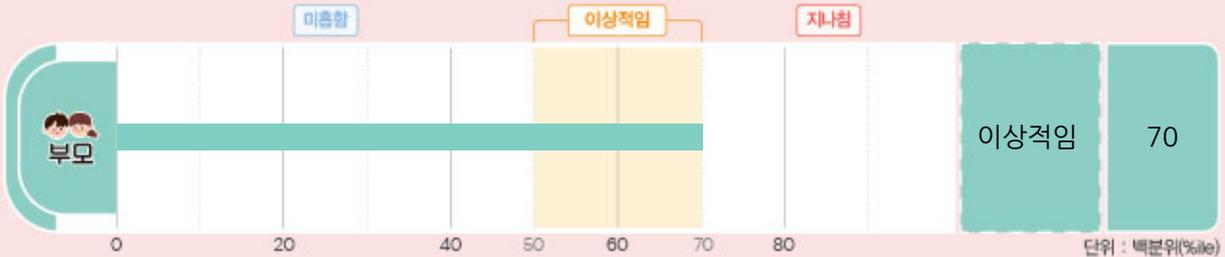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적인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40% 이하인 경우 자녀와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척도가 너무 낮으면 부모의 성향이 과묵하거나 부모가 겪은 부정적인 과거 경험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직업 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자녀에게 일정 시간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자녀의 사회적 대화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자신감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지나칠 때

부모와 자녀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시도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자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양육 받은 경험과 너무 달라 심리적 긴장을 가지기 쉬운 아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 번의 설명 이후에도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단호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성취압력

약간의 성취압력은 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능이 높은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압력에 대체로 별 문제 없이 적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지능력이 부모의 성취압력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쉽게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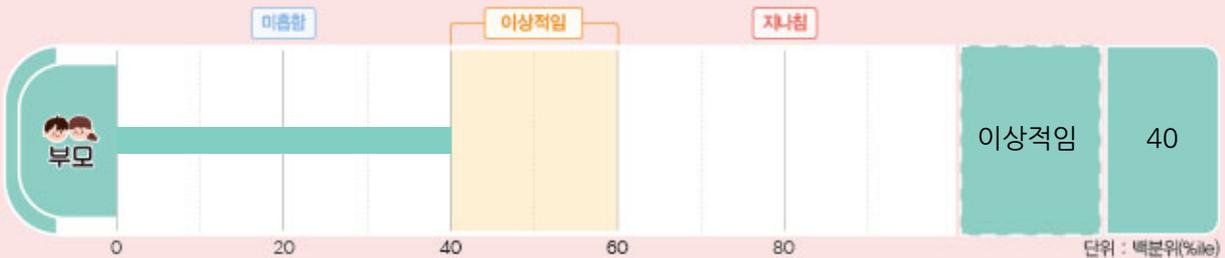
자녀는 이 사회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부모가 적게 가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제를 완성시키는 집중력이 낮아질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아동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쏟아붓는 노력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점수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자녀의 수행력(예: 피아노를 열심히 치거나, 장난감을 열심히 조립하거나, 친구들과 열심히 놀 때 등)이 발전될 경우에는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을 함께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칠 때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자녀의 지능 수준이 상위 20% 정도에 속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칫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지 않고 그냥 '하는 척하는 아동'으로 발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태도에서 조금 낮추어서 자녀에게 지금보다 5-10% 정도만 더 향상시켜 보라고 압력을 주세요. 자녀가 감당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압력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친 성취압력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자녀는 상식만 많이 갖추게 되고 진정 중요한 사고력은 발달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간섭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직된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느 정도 인 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초동사실 이후까지 지속되면 깊이 있는 사고습관을 가지기 어려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흡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동인 경우에는 비교적 바람직하지만, 과제 수행에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아동이 일반적으로 즉흥적이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도 진전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조금씩 개입을 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칠 때

간섭은 감독과 함께 어린 유아의 시기에는 절제된 행동 발달이나 과제집중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간섭입니다. 기분에 따라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간섭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충동적인 성향이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성향으로 발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처벌

상위 10%에 속하는 부모들은 자녀도 공격성을 배우거나 목적 없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가할 때에는 일관성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자녀가 처벌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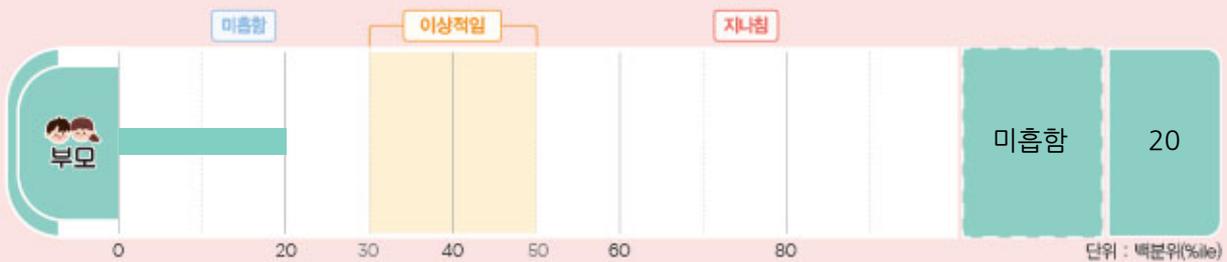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아 시절에는 적당한 압력이나 행동적 제제 등 적절한 훈육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가 행동 규범을 명확하게 하면, 자녀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깨닫게 되고 반복된 노력으로 부모의 규범을 내면화시킴으로 바람직한 행동 습관이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칠 때

한국의 부모들은 이 점수에서 많이 너그러운 편으로 대부분의 점수가 높게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할 수 있으나 신체적 처벌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가 심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느낀 점을 차후에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처벌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며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청소년기 이후에는 물리적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

자율성은 자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감독의 정도가 적당하면 행동규범을 잘 습득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라 **자율성의 폭을 점차 넓려야** 자녀가 바람직한 사회성을 습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흡할 때

부모가 자녀를 많이 믿고 있으며,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유형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낮아지는 등의 좋은 측면도 있는 반면, 너무 낮을 경우는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좋은 습관을 갖추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칠 때

부모가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양육방식은 자녀가 어릴 때는 성적이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초등 고학년 이후부터는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너무 지나칠 경우, 오히려 자녀의 거짓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자발성에서 생겨납니다. 어려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는 자발성과 탐구심, 사고력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조금 더 허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으며, 확인하려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잉기대

암묵적 기대란, 부모의 기대수준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발달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의 암묵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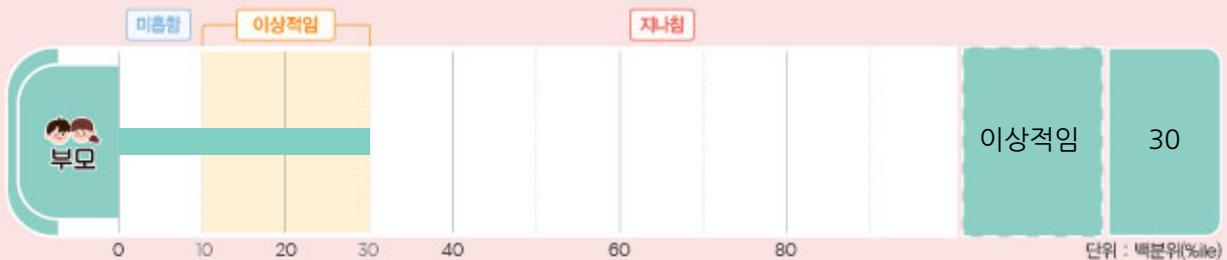
부모가 자녀의 모든 면을 인정해 주려는 양육태도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긴장이 이완되는 양육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적 자극을 어느 정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에 필수요소입니다.

지나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질해야 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부모의 눈빛, 음성 톤, 행동 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장·단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발달 곡선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의 수평적 비교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비일관성

부모의 양육 방식 중에 **가장 부적절한 태도**로서,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인** 부모님들은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인은 부모의 성격적인 불안정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힘 없는 자녀에게로 분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일관되지 않은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흡할 때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의 경험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바깥세상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모 개인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면서 나쁜 감정을 느낀 이유를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칠 때

양육태도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점수가 높은 부모들은 상당 부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과 현재 생활 상황에서의 불만족감을 자녀에게 나타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일관성 있는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고, 자녀도 나이가 들수록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할 양육태도이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부모들은 공부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 따라 다른 기준점을 가질 수 있으나, 각 영역마다 시종일관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커피잔을 깨뜨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오늘 깨뜨릴 때와 일주일 후 깨뜨릴 때의 부모의 반응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육을 하실 때에는 과거 사건을 들추어 가면서 한꺼번에 모아서 꾸중하지 않도록 하며,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